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단1465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1고단1465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김효준(기소), 김민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승언(국선)
판결선고	2021.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0. 18: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가 운영하는 미 용실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곳의 자에 앉은 상태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더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지마라.'와 같은 말을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6:5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저는 누님하고 방에서 연애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요. 키스도 하고 보지도 빨고 가래침도 먹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1. 2. 17.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13: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본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3개,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링크된 URL 주소 1개를 메시지로 보내고, 같은 날 15:35경 "사장 님하고 가게 방에서 연애 한 번 하고 싶어요. 키스도 하고 보지도 실컷 빨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 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